

The Policy Trends and Initiative Related to Plastics in Europe

유럽의 플라스틱 규제 동향

植田洋行 仲嶋翼 小川結 / 미츠비시UFJ리서치&컨설팅(주)
정책연구사업본부 환경·에너지 유닛 지구환경부

I. 서론

최근 유럽에서는 플라스틱에 관한 새로운 정책·시책의 책정이나 민간기업 등과 연대한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표 1]). 그 배경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자원 효율성, 지구온난화 등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이행

[표 1] EU의 플라스틱에 관한 주요 움직임

노력의 종류	EU의 지령·전략 등	유럽 각국의 동향
상위 정책 (계획·전략 등)	· 순환경제패키지(2015) · 신 순환경제행동계획(2020) · 유럽플라스틱전략(2018)	· 네덜란드 : A Circular Economy in the Netherlands by 2050(2016) · 프랑스 : Roadmap for the Circular Economy(2018) · 독일 : 플라스틱 삭감 및 리사이클을 위한 5항목의 계획(2018) · 네덜란드 : Transition Agenda, Plastics(2018)
특정 제품의 규제 등	【쇼핑백】 · 플라스틱제 쇼핑백 삭감을 위한 용기포장 및 용기포장폐기물에 관한 지령 개정(2015)	· 이탈리아 : 플라스틱제 쇼핑백 금지(2012) · 영국 : 플라스틱제 쇼핑백 유료화(2015) · 프랑스 : 플라스틱제 쇼핑백 금지(2016) · 독일 : 플라스틱제 쇼핑백 유료화의 자주협정(2016), 금지예정 공표(2019) · 네덜란드 : 플라스틱제 쇼핑백 유료화(2016) · 스페인 : 플라스틱제 쇼핑백 유료화(2018), 금지(2021)
	【신선식품용도 등의 얇은 파우치】 · 규제 없음	· 프랑스 : 얇은 플라스틱 파우치 금지(2017) · 이탈리아 : 얇은 플라스틱 파우치 금지(2018) · 스페인 : 얇은 플라스틱 파우치 금지(2021)
	【특정 플라스틱제품】 · 플라스틱제품의 환경부하 저감에 관한 지령(2019)	· 프랑스 : 플라스틱 식품용기 등 금지(2020년 1월 실시) · 영국 : 플라스틱 스트로, 머들러, 면봉 금지(2020년 4월 실시 예정)
자주협정· 동맹 등	· Circular Plastics Alliance(2018)	· 영국 : 영국플라스틱협정(2018)
	· 유럽플라스틱협정(2020)	· 프랑스 : 플라스틱 용기포장에 관한 국가협정(2019) · 네덜란드 : 플라스틱협정 NL(2019)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순환경제에서 나아가 재생 가능한 생물 유래 자원의 활용을 사회 전체에서 추진한다는 바이오 이코노미의 조류 하에서 석유 유래 플라스틱의 대체재로서 재생 가능 자원의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 유럽 각국 및 일본의 플라스틱 관련 정책·시책 및 민간기업 등과의 연대에 의한 노력 등의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II. EU의 동향

EU에서는 환경(특히 해양)에 대한 플라스틱의 유출 방지, 자원 효율성의 향상, 고갈성 자원으로부터의 탈피, 지구온난화 대응 및 EU 국가 내에서 산업진흥 등을 목적으로 순환경제 및 플라스틱에 관련하는 정책을 책정하고 있다.

2015년에 유럽위원회가 공표한 ‘순환경제패키지’의 일부인 ‘순환경제행동계획’과 2015년 행동계획의 성과를 파악해 2020년 3월에 ‘보다 클린하고 경쟁력이 높은 유럽을 위한 신 순환경제행동계획(이하 신순환경제행동계획)’을 책정했다. 여기에서는 중점 분야의 하나로써 플라스틱을 꼽고 있다.

또한 2018년에 ‘순환경제에 있어서 플라스틱을 위한 유럽 전략’(이하 유럽플라스틱 전략)이 유럽위원회에 의해 공표되고, 2019년에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 부하 저감에 관한 지령’이 성립·시행되고 있고, EU 가맹국은 2021년 7월까지 대응할 정책·시책을 책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표 2]).

III. 유럽 각국의 동향

유럽 각국에서도 EU에 의한 정책을 파악하고 플라스틱의 생산·사용·폐기·리사이클 등에 관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한 정책에 대해 [표 3]에 나타냈다.

또한 표에 나타낸 국가 이외에도 핀란드의 ‘플라스틱 로드맵’(2018년 공표)이나 덴마크의 ‘플라스틱에 관한 행동 계획’(2018년 공표) 등 각국 정부에 의한 플라스틱에 관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IV. 국민과의 연대에 의한 노력

유럽위원회가 주도하는 국민 연대의 노력으로써 2018년 12월에 설립된 ‘Circular Plastics Alliance’가 존재한다. 이 동맹은 재생 플라스틱의 사용 증가를 주요 목적으로 해 플라스틱

(표 2) EU 플라스틱에 관련한 주요 활동

정책명	개요
순환경제패키지 (2015년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소재, 자원의 가치가 가능한 한 길게 유지되고,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한으로 억제되는 경제로의 이행이 목적 · 구체적 시책을 나타낸 행동계획 및 폐기물법령의 개정에 의해 구성 · 행동계획에서는 제품 사이클(생산, 소비, 폐기 등) 및 우선항목(플라스틱, 식품폐기물, 희소자원, 건설·해체, 바이오매스·바이오매스 유래 제품)별 시책을 책정 · 폐기물 법령의 개정에서는 2030년까지 용기포장 폐기물의 리사이클률을 75%, 일반폐기물의 매립량을 10% 이하로 하는 것 등을 기재
플라스틱제 소핑백 삭감을 위한 용기포장 및 용기포장 폐기물에 관한 지령 정책(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파우치의 환경(특히 해양)에 대한 영향 저감이 목적 · EU 기맹국의 플라스틱제 소핑백(두께 15μm 이상 50μm 미만)에 관해 다음 내용을 만족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요구 · 1인당 연간 사용량을 2019년까지 90매 이하, 2025년까지 40매 이하로 삭감 · 유료화 또는 동등하게 유효한 시책을 2018년 말까지 실시
유럽플라스틱전략 (2018년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순환경제패키지에 근거해 책정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자원 순환, 온난화 대책, 고용 창출, 수입자원에 대한 의존 감감이 주요 목적 · 비전 : ①스마트하고 혁신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산업, ②시민·정부·산업계에 의한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소비·생산 패턴의 지지와 사회적 이노베이션 및 기업의 기반 정비 · 목표 :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을 재이용 가능 또는 경제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리사이클할 수 있게 하고, 2030년까지 유럽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이 리사이클된다. 분별 회수·리사이클 능력을 2015년 대비 4배로 확충해 2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재생 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등 · 시책 : 리사이클의 경제성·재생재의 품질 개선을 위한 지령 개정이나 품질 기준·라벨 책정, 바이오 플라스틱의 LCA 실시, 산화형 분해성 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시책, 1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검토, 마이크로 플라스틱 대책 등
플라스틱제품의 환경부하 저감에 관한 지령 (2019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특히 해양)에 대한 플라스틱 유출 억제가 주요 목적 · 2018년 유럽플라스틱전략에 근거해 법안화, 2019년 7월부터 시행 · EU 기맹국에게 다음 내용의 시책을 2년 이내에 마련하도록 요구 · 소비 삭감 : 음료 컵(뚜껑 포함), 식품용기 · 판매 금지 : 면봉의 봉, 카틀러리, 접시, 스트로, 머들러, 풍선용 스틱, 발포 폴리스티렌제 식품용기, 발포 폴리스티렌제 음료용기(뚜껑 포함), 발포 폴리스티렌제 음료컵(뚜껑 포함), 산화형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 제품 개량 : 컵·뚜껑이 있는 음료용기 · 마크 표시 : 생리대 등 생리용품, 물티슈, 필터 부착 담배 및 필터, 음료컵 · 확대생산자책임 : 식품용기, 식품포장, 음료용기, 음료컵(뚜껑 포함), 플라스틱 파우치, 물티슈, 풍선, 필터 부착 담배 및 필터, 어구 · 분별 회수 : 음료 보틀 · 의식 계발 : 식품용기, 식품포장, 음료용기, 음료컵(뚜껑 포함), 필터 부착 담배, 물티슈, 풍선, 플라스틱 파우치, 생리용품, 어구
신 순환경제행동계획 (2020년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위원회에 의해 2020년 3월 공표 · EU의 기후변동정책 '유럽그린딜'의 핵심 내용이 되고, 순환경제로의 이행이 목적 · 제품 사이클 및 중점 분야(전자·ICT 기기, 배터리·자동차, 용기포장, 플라스틱, 섬유, 건설·건축, 식품·물·영양소)별 시책을 제시 · 주요 내용 및 시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제품에 관한 법안 책정(내구성, 재이용성, 수리성, 재생재 사용 등에 관한 기준, 1회용이나 미 판매의 내구 소비재의 폐기 금지 등) · 소비자 권익의 확보(수리할 권리의 설립, 지속가능성에 관한 제품 표시의 기준 책정 등) · 분야별 시책(플라스틱 : 포장재, 건축자재, 자동차 등에 관한 재생재의 함유량과 폐기물 삭감 대책에 관한 업무 요건의 제안,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배출 대책, 바이오 플라스틱의 정책 시안 책정 등) · 폐기물 삭감(2030년까지 리사이클되지 않는 가정 쓰레기량 반감을 목표로 한 대책의 실시 : 용기포장 포함 제품별 지령의 수정, 확대생산자책임, EU 공통의 분별 회수·라벨링 시스템 도입 등)

[표 3] 유럽 각국의 플라스틱과 관련한 주요 활동

각국	정책명	개요
프랑스	플라스틱제 소핑백 금지 (2016년 실시)	· 법령으로 플라스틱제 소핑백의 사용을 금지목적 · 두께 50µm 이상, 재이용 가능한 플라스틱 파우치, 또는 종이나 섬유 등 플라스틱 이외 소재의 파우치는 규제 대상 외 · 바이오 플라스틱제 소핑백도 규제 대상
	얇은 플라스틱 파우치 금지 (2017년 실시)	· 법령으로 소핑백 이외의 1회용 플라스틱 파우치(신선식품용도 등)의 사용을 금지 · 일정 이상의 바이오매스 비율, 가정에서 비료화 가능한 플라스틱 파우치는 규제 대상 외, 바이오매스 비율 하한값은 단계적으로 인상(2017년 30%, 2018년 40%, 2020년 50%, 2025년 60%)
	플라스틱 식품용기 등 금지 (2020년 1월 실시)	· 2016년 법령으로 1회용 플라스틱 식품용기 등을 금지, 2018년에 대상제품을 확대(대상제품: 컵, 유리, 그릇, 스토, 커피머신, 식품 트레이, 보울, 식품용기, 머들러 등). · 일부 제품에 관해서는 일정 바이오매스 비율, 가정에서 비료화 가능하면 규제 대상 외로 하였는데, 2019년 개정에 의해 2021년 7월 이후에는 이들 제품도 규제 대상(EU의 플라스틱제품의 환경 부하 저감에 관한 지령에 대응)
	Roadmap for the Circular Economy(2018년 실시)	· 5가지 목표를 내걸고 4개 분야(생산·소비·폐기물 관리·이해관계자의 동원)에서 50개 시책을 제시, 특히 폐기물 관리정책에 중점 · 목표: 2025년까지 폐기물 매립량의 반감, 플라스틱 리사이클률 100%, 최대 30만 명의 고용 창출 등 · 시책: 확대생산자책임, 리유스·리페어의 강화, 리사이클 촉진을 위한 세금 정비, 유기성 폐기물 회수 시 생분해성·비료화 가능 파우치의 사용 등
독일	플라스틱 삭감 및 리사이클을 위한 5개 항목의 계획(2018년 공표)	· 항목별 시책을 제시(불필요한 제품·용기포장의 회피, 용기포장·제품의 환경배려형으로의 전환, 리사이클 강화·재생재의 이용 촉진,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플라스틱 혼입 회피, 해양 쓰레기 대책·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 · 시책: 화장품 속 마이크로 플라스틱 폐지, 불필요한 1회용 플라스틱 금지, 환경배려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해외자금 공출 등
	플라스틱제 소핑백 유효화의 자주협정(2016년 성립), 금지 예정 공표(2019년)	· 2016년 독일 연방 환경부와 소매업체 간에(2018년까지 소매점에서 배포되는 플라스틱제 소핑백의 80%를 유효화하는 합의가 성립) · 2019년 독일 정부는 플라스틱제 소핑백의 금지 예정을 공표해 유럽위원회에 드래프트 법안을 제출
네덜란드	A Circular Economy in the Netherlands by 2050(2016년 공표)	·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행동 계획 · 우선분야(바이오매스·음료, 플라스틱, 제조업, 건설업, 소비재)에 관해 이행을 위한 의제(Transition Agenda)를 책정해 시책을 제시
	Transition Agenda, Plastics(2018년 공표)	· 4개 방향성(배출 억제·유출 방지, 품질 개선·환경부하 저감, 공급망의 협동, 재생가능 플라스틱의 공급·수요 증가)과 시책을 개제 · 시책: 포장·건설·자동차·가전산업에서 자원효율성의 향상, 재생 플라스틱의 공급·수요 증가를 위한 세제 배치의 검토나 예코라벨의 활용,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증가를 위한 시책 등
	플라스틱제 소핑백 유효화 (2016년 실시)	· 소매점 등에서의 플라스틱제 소핑백을 유효화 · 재이용 가능한 파우치, 바이오 플라스틱제 파우치도 규제 대상
이탈리아	플라스틱제 소핑백 금지 (2012년 실시)	· 비료화 가능 플라스틱 파우치, 재이용 가능한 플라스틱 파우치, 종이, 천연섬유소재 이외의 소핑백을 금지(유효화는 기존부터 실시 완료)
	얇은 플라스틱 파우치 금지 (2018년 실시)	· 신선식품용도 등의 얇은 플라스틱 파우치에 관해 가정에서 비료화 가능하고 일정 바이오매스 비율의 제품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규정 · 바이오매스 비율 하한값은 단계적으로 인상(2018년 40%, 2020년 50%, 2021년 60%)
스페인	플라스틱제 소핑백 유효화 (2018년 실시)	· 소매점 등에서의 플라스틱제 소핑백을 유효화 · 두께 50µm 이상이고 재생 플라스틱의 함유율이 70% 이상인 파우치는 규제 대상 외
	플라스틱제 소핑백 및 얇은 플라스틱 파우치 금지(2021년 실시 예정)	· 2021년 이후 소매점 등에서의 플라스틱제 소핑백 및 얇은 플라스틱 파우치의 제공을 금지 · 비료화 가능 플라스틱은 규제 대상 외
영국	플라스틱제 소핑백 유효화 (2015년)	· 영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점에서 플라스틱제 소핑백을 유효화
	플라스틱 스트로 등 금지 (2020년 4월 실시 예정)	· 영국에서 플라스틱 스트로, 머들러, 면봉의 제공을 금지

(표 4) 국민 연대의 주요한 노력

국민 연대의 노력	대상국가	개시년	개요	
Circular Plastics Alliance	EU	2018년	· 유럽위원회가 주도하는 국민 연대의 노력, 재생플라스틱의 사용 증가를 주요 목표로 한다. · 플라스틱 공급망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가 · 지금까지 5가지 분야가 특정됨과 동시에 100개사 이상의 기업이 재생 플라스틱 사용 증가를 위한 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New Plastics Economy	글로벌	2016년	· 엘렌 맥아더 재단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로, 새로운 플라스틱 경제를 위해서는 문제가 있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거, 모든 플라스틱의 재이용·리사이클·비료화를 위한 이노베이션, 경제에 있어서 플라스틱의 순환이 필요하다는 비전, 기업, 정부 등을 연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	글로벌	2018년	· New Plastics Economy의 노력의 하나로, 450개 이상의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서명하고, 플라스틱 사용 삭감 등에 관해 2025년까지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Plastics Pact	글로벌	불명	· New Plastics Economy의 노력의 하나로, 국가·지역에 있어서 플라스틱협정의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
각국·지역의 플라스틱 협정	The UK Plastics Pact(영국플라스틱협정)	영국	2018년	· 플라스틱 용기포장의 삭감을 위해 WRAP(환경NPO) 주도로 영국 정부, 민간기업 간에 협정을 체결. 참가기업은 140개사 이상. · 2025년까지 플라스틱 용기포장을 100% 재이용 가능, 리사이클 가능, 비료화 가능으로 하는 것이나 불필요한 용기포장의 배제를 목표로 하고, 구체적 노력을 기재한 로드맵을 책정
Pact National surles emballages plastiques(플라스틱 용기포장에 관한 국가 협정)	프랑스	2019년	· 기업의 플라스틱에 대한 노력 추진을 위해 프랑스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간에 협정을 체결 · 공통 비전으로써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배제나 모든 플라스틱 용기포장의 재이용·리사이클·비료화 등을 내걸고, 비전 달성을 위한 서명 단체의 속성별 약정을 기재	
	The Plastics Pact NL(플라스틱협정 NL)	네덜란드	2019년	· 기업의 플라스틱에 대한 노력 추진을 위해 네덜란드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간에 협정을 체결. 주도는 네덜란드 인프라·물관리 부처. · 공통 목적으로써 플라스틱의 리사이클 증가, 재생 플라스틱 및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제품에 대한 사용 증가를 내세우고 각 기업에 의한 노력을 기재
	European Plastics Pact(유럽플라스틱협정)	EU	2020년	· 프랑스 정부, 네덜란드 정부, 덴마크 정부가 주도해 14개국, 합계 114개 정부 기관, 민간기업, 업계 단체, NGO 등이 서명 · 플라스틱제품·용기포장의 삭감이나 재이용·리사이클의 추진 등에 관한 목표를 내걸고, 앞으로 워킹 그룹별로 실시를 위한 작업을 추진할 예정

공급망의 주요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참가하고 있다. 특히 EU의 재생 플라스틱 시장의 과제로써 특정되고 있는 수요 측과 공급 측의 만남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5가지 중점 분야가 특정되었고(회수·분별, 제품 디자인, 제품 중 재생 플라스틱, 케미컬 리사이클 등에 대한 투자, 재생 플라스틱의 모니터링), 100개사 이상의 기업이 재생 플라스틱 사용 증가를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

이밖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민 연대의 추진에 엘렌 맥아더 재단(Ellen McArthur Foundation)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엘렌 맥아더 재단은 순환경제에 대한 이행을 기업이나 정부 등과 연대해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된 영국의 NPO로, 플라스틱의 이용·폐기 상황에 관한 조사활동·제언을 해왔다. 2016년에는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New Plastics Economy'라는 이니셔티브를 내세우고, 문제가 있고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제거, 모든 플라스틱의 재이용·리사이클·비료화를 위한 이노베이션, 경제에 있어서 플라스틱의 순환을 비전으로 내걸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의 주요 활동으로써 2018년 10월에는 국가연합환경계획(UNEP)과 연대해 '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가 발표되었다.

현재까지 450개를 넘는 기업 등이 참여해 서명을 마쳤고, 서명한 기업 및 정부 관계는 플라스틱 사용 삭감 등에 관해 2025년까지 목표를 세우고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엘렌 맥아더 재단은 앞에서 서술한 New Plastics Economy 가운데 각국·지역의 Plastics Pact(플라스틱협정)를 네트워킹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활동명도 'Plastics Pact'). 플라스틱협정이란 각국·지역에서 플라스틱 대책에 관한 비전을 세우고, 정부, 기업, 시민 등이 협동해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국가·지역별 운용은 다르지만, 공표되는 도큐먼트에는 비전과 함께 참가자의 속성별·단체별 노력, 모니터링의 노력 등이 담겨있다. 2018년에 영국이 처음으로 'The UK Plastics Pact'를 발족시킨 이후 각국·지역에서 플라스틱협정을 발족하는 움직임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표 4]에 2020년 3월 시점에서 확인되고 있는 주요 플라스틱 협정을 나타냈다. 또한 표 안에 넣지 못했지만 2020년 1월에는 남아프리카가 'The South African Plastics Pact'를, 2020년 2월에는 포르투갈이 'Portuguese Plastics Pact'를 발족시켰다. 더욱이 오스트리아·뉴질랜드·남태평양군도는 'ANZPAC Plastics Pact'를 발족시켜 엘렌 맥아더 재단의 Plastics Pact에 참가하는 것을 2020년 3월에 표명한 바가 있다.

V. 일본의 노력

일본에서는 자원·폐기물제약,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지구온난화, 아시아 각국에 의한 폐기물 수입규제 등의 폭넓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3R+Renewable(재생 가능 자원에 대한 대체)'을 기본 원칙으로 한 플라스틱의 자원 순환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 '플라스틱 자원 순환 전략'([표 5])이 2019년 5월 31일에 책정되었다. 이 전략에서는 리듀스, 리유스·리사이클, 재생이용·바이오매스 플라스틱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목표나 달성 목표 시기가 제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2030년까지 도입 목표를 약 200만 t으로 하였다([표 6]). 이 글을 쓸 시점에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에 관한 수치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뿐으로, 유럽 각국의 앞으로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 전략을 받아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 로드맵'의 검토가 개시된 상황으로, 소재·용도별 도입의 방향성·개선 등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스틱제 소평백에 관해서는 이 전략의 '리듀스' 목표를 받아 2019년 12월에 용기법 판

〔표 5〕 플라스틱 자원 순환 전략의 이정표 내용

노력 목표	노력의 구체적 내용	달성목표시기
리듀스	1회용 플라스틱을 25% 배출 억제	2030년
리유스 · 리사이클	리유스 · 리사이클 가능한 디자인화	2025년
	용기포장의 6할을 리유스 · 리사이클	2030년
	1회용 플라스틱을 100% 리유스 · 리사이클 등에 의해 유효 활용	2035년
재생이용 ·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재생이용 증가	2030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약 200만 t 도입	2030년

〔표 6〕 일본 · 네덜란드 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도입에 관한 목표의 비교

목표 내용	일본	네덜란드
도입 목표연도	2030년	2030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도입 목표 ^{*1}	약 200만 t	37만 t
플라스틱 총 사용량에 대한 비율	약 18% ^{*2}	15%


※1 일본은 부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써의 총 중량, 네덜란드는 상세 불명.

※2 2030년 일본의 플라스틱 총 사용량을 현행 정도의 1,100만 t으로 계산

단성령^{*1}이 개정되고, 2020년 7월 1일부터 플라스틱제 쇼핑백을 유효화될 예정이다. 더욱이 교토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내에서 플라스틱제 쇼핑백의 공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단 생분해성을 가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제 쇼핑백은 제외) 독자 조례를 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전략에 근거한 플라스틱 제조, 사용, 폐기 · 리사이클에 관한 근본적 노력이 추진될 예정으로 그 동향이 주목된다.

VI. 결론

이 글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유럽에서는 순환경제의 추진이라는 큰 비전을 바탕으로 플라스틱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갈성 자원에 의존해 폐기물을 대량으로 폐기하는 사회 · 경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 · 경제를 실현함과 동시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나 지구온난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순환경제형 사회 · 경제로의 이행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나 경쟁력을 산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또한 EU 및 각국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기업 등이 정부 또는 민간과 연대하면서 노력해나가는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이니셔티브와 민간기업의 노력과 함께 플라스틱에 관련하는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럽 등의 동향 등을 파악하면서 국내에서의 노력을 한층 더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1 용기포장에 관한 분별수집 및 재생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5년 법률 제112호) 제7조의 4절 1항의 규정에 근거해 소매업에 속한 사업을 하는 자의 용기포장의 사용 합리화에 의한 용기포장 폐기물의 배출 억제 촉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한 성령